

광분했던 20세기의 감흥... 돌아버릴 것같은 21세기 현실

행복한 책 읽기

에거서 크리스티 '비틀어진 집'
(황금가지 펴)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니?

김갑수 지음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2001)를 통해 그를 처음 만났다. 바흐 이전에 살았던 작곡가 텔레만은 낯선 인물이라 책 제목으로 내세운 점이 특이했던 기억이 난다. 책을 읽으면서 클래식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그의 내용이 만만찮음이 느껴졌다.

책을 읽는 이들에게 나만의 '작업실'에 대한 로망을 갖게 했던 '지구 위의 작업실'(2009)에서는 클래식 음악, 오디오, 커피를 넘나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시인, 문화평론가 김갑수씨가 5년만에 신작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니?'를 펴냈다. 광분했던 청년기의 20세기적 감흥을, 돌아버릴 것같은 21세기 오늘의 현실을 아우르는 제목이다.

그는 서울 마포의 어느 고깃집 지하에 위치한 작업실 '줄리아 홀'에서 3만장의



음반과 오디오 기가들을 갖춰놓고 '백수'처럼 살아간다.

책은 '추억의 음악, 일상의 음악', '레알 작곡가 뒷담화', '죽이는 연주자들'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삶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며 프랑크의 '바이올리나타 A장조', 비외탕의 '바이올린협주곡', 베토벤의 소나타, 필립 글래스의 '흐느적거리는 나날' 등을 소개한다. 베토벤, 브람스, 바흐, 에릭사티 등 작곡가들을 둘러싼 비화와 그들의 음악을 풀어내는 것도 재미있다.

본인이 책에서 밝혔듯 그는 종편 예능 단골 출연자가 되다 보니 꽤 다른 취급을 받는 모양이다. 어떤 기자는 면전에 대고 '선생님이 망가지기 전에는...' 운운하며 망가진 사람 취급을 하는데 슬퍼하지 않겠



마리아 칼라스

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시장에서 살면서 동시에 개인의 동굴도 있다"고 말한다. 시장 좌판에 나와 앉아 있는 자기 생이 서글픈 이가 있다면 리스트의 '순례의 해' 중 '르 말 뒤 페이'를 들어보라고 권한다.

그는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를 '복종하기 위해 그녀가 여왕으로 군림하는 성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하급 병사의 심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표현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첼리스트 요요마 등을 바라보는 시선도 흥미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알게 모르게 일상에 들어오는 클래식 음악으로의 초대 "그대, 시장 좌판에 앉아있는 삶이 서글프다면 리스트 '순례의 해' 들어보라"

롭다. 글을 풀어내는 방식이 어쩌면 가볍게도 느껴지지만 글 속에 담긴 인문학적 베이스는 탄탄하다. 특히 그가 책에서 언급한 클래식 음반들은 한번쯤 들어보고 싶어진다. 어떤 음악을 듣는가는 취향의 문제지만, 오랫동안 차를 운전하는 여행에는 바로크 음악이 안성맞춤이라는 그의 견해에 한번 따라볼 참이다. <오픈하우스·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누가 왕따를 만드는가=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왕따와 차별 현상을 냉철한 시점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인 야가사키 노리오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암묵적인 폭력인 왕따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왕따나 차별 문제를 '배제'란 키워드로 설명하고 이를 학교 내 따돌림, 노숙자 살인, 사이버 종교, 문치마 범죄, 장애인 차별, 젊은이들의 현실 도피 등 6개의 주제로 나눠 분석했다. <유아이북스·1만4500원>



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저자의 목적이다. <멘토르·1만5000원>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수학의 근본 개념과 수학이란 학문에 깃든 흥미로운 요소를 타 학문과 연계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한다.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수학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고등학생이나 좀 더 깊은 수학적 원리에 다가가기 원하든 대학생, 본의 아니게 수학과 멀어졌던 성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한국문화사·1만4500원>

▲13억 인과의 대화=우리는 중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우리는 늘 중국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잘 안다는 착각을 일으키곤 한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먹거리가 다르고, 심지어는 대소변을 보는 방법도 다르다.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상식을 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중국인의 무지함과 지혜로움과 따뜻함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벵골과 밀물·1만4500원>

▲점에서 철학으로=점서에서 출발해

한 대에는 유교의 최고 경전에 오른 책에 대한 이야기다. 주역은 과연 점서인가, 철학서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주역은 인간의 운명을 주재하는 초월적 존재의 의지를 묻기 위해 점을 치고 희생을 바치는 귀복점(龜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많은 철학적 관점을 담고 있다. 책을 통해 주역의 진화와 변신의 과정을 추적해 본다. <동과서·3만원>

▲마키아벨리, 시민정치의 오래된 미래=박용규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가 펴낸 마키아벨리 평전. 저자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마키아벨리의 진면목을 다시 살펴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책을 썼다. 그는 마키아벨리 사상은 마키아벨리즘과 무관하며, 그의 진심은 16세기 이탈리아라는 시공간적 현실 속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있었다고 얘기한다. <필맥·1만4000원>

어린이 책

▲학교가 괴물로 가득 찬 날=학교에서 친구들과 괴롭히던 싸움 대상 유식이 괴물들을 만나 반대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동화책. 유식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콜라·1만원>



▲오리와 참매의 평화여행='이빨자국', '싸움닭 사모' 등 성장을 모티브로 한 청소년소설을 지속적으로 출간해 온 조재

도 작가의 첫 그림 동화.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오리'와 '참매'가 싸움을 멈추고 부엉이, 반딧불이 등과 함께 평화동산을 향한 여정을 그리고 있다. <작은숲·1만원>

▲모래요정과 다섯 아이들=은 국민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애니메이션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원작이자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에디스 네스빗의 첫 판타지 동화. 국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작으로 어린 독자들에게 신나는

모험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해 준다. <보물창고·1만1000원>

▲사시사철 우리 살림 우리 문화=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전통 생활사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구성지게 전해준다. 생동감 넘치는 인형들과 실제 자연을 배경으로 더한 그림이 마치 작은 생활사 박물관을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져 온다. <한솔수북·1만1000원>

텔레비전은 연일 재난방송과 추리극 일색이다. 리모컨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 보아도 내용은 엇비슷하다. 지루하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비틀어진 집'을 찾아 읽는다. 살인범은 과연 누구인가. 긴장하면서 책장을 넘겼다. 이 재벌 영감을 살인해야만 했던 동기는 무엇인가. 자살이었다. 아니 독극물로 인한 타살이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책장을 넘기다 뉴스를 본다.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을 하다 병원에 실려 갔다는 뉴스를 읽었고, 7·30재보선 결과에 희희낙락하는 대통령의 얼굴을 보았다.

연예인 가족들이 총출동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을 즐겼다. 무의미했다. 4대강의 큰빛이끼벌레 사진이 실린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을 읽었다. 끔찍했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운대로 물리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보였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로 환했다. 채널을 바꿨다. 침몰해가는 야당의 무기력함이 시선에 잡혔다. 야당의원들이 무척추동물처럼 느껴졌다.



공중 높이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인가

지구촌 뉴스, 원난성의 지진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망자 소식에 분노하면서 다른 뉴스채널로 돌린다. 유명인 미스터리 진행 중이다. 밀실이 공개되었다. 추리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다. 본말전도(本末顛倒), 핵심이 흐려진, 유명인 번사건은 불필요한 정보를 스토리라인에 주입시켜 세월호 진실을 덮는 추리극 같다. '비틀어진 집' 속, 범인이 결국 또 한 명을 살해하고야 만다. 정병 살인범은 누구인가. 수사는 결국 오리무중이 빠져나간다.

뉴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5일 현재 887명을 넘어서 급속히 확산된다고 했다. 신종플루처럼,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면 어떤 어떡하지. 뒤에는 연예인 뉴스와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했다. 뉴스 바깥, '내가 사는 지금 여기'는 대체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실제로 '내 가족이 안전한 국민'은 내일이 두렵다. 뉴스가 산발적으로, 또는 태풍이 몰아치듯 공포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비틀어진 집'을 모두 읽었다. 추리적 상상력으로 예상된 범인을 명쾌하게 잡아 속이 후련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범죄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아리송한 불신의 뉴스는 언제나 진행 중이다. 국민의 우울감이 극대화된다. 열거적인 폭행살인, 재난사고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터져 보도될 것이다.

'대만 가오승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초도화' 라는 뉴스가 났다. 끔찍해진다. '당신이 사는 거'도 지금은 뉴스 바깥에서처럼 평화롭게 보일 뿐이다. 재난들로 재난이 묻히고 있다. 재난과 재난들이 섞여 혼돈스럽다.

온갖 뉴스에 묻히는 세월호 유족들의 애끓는 통곡이 잊혀질까 두렵다. 이대로 4·16 세월호를 망각할 수는 없다.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공중 높이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인가/ 어머니의 비탄 같은 흐느낌 소리" -T.S 엘리엇의 '황무지' 중에서-

4·16 세월호 특별법이 시급하다. 더 이상은 '내 가족이 안전한 국민'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다가를 공포의 인재(人災), 대한민국의 재난뉴스를 정밀로 상상하고 싶지 않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신춘문에 소설 당선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각종 인쇄물
- 전단지
- 상패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상패
- 전단지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dtjs12@hanmail.net